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확정

-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추진과제 마련

금융위원회는 6.21일(수)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이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5.31일(수)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가상자산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하락하는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핀테크, 벤처캐피탈), 프랑스 파리(지속가능금융) 등은 특화형 금융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 주요도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

[도쿄]	(17.9) 5위	→	(19.9) 6위	→	(21.9) 9위	→	(22.9) 16위	→	(23.3) 21위
[SFO]	(17.9) 16위	→	(19.9) 12위	→	(21.9) 5위	→	(22.9) 5위	→	(23.3) 5위
[파리]	(17.9) 26위	→	(19.9) 17위	→	(21.9) 10위	→	(22.9) 10위	→	(23.3) 14위

이에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추진과제 ① :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추진과제 ② :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③ : 자본시장 국제화)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④ : 금융중심지 내실화) 금융위내 신설한 ‘금융 국제화 대응단’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outbound)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금융사 유치 노력(inbound)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 (별첨)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요약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김진경 (02-2100-2891)

